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19,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의 19번째 세션입니다.

12장에서 첫 번째 짐승을 사탄의 대리인으로 묘사하고 그것과 여러 가지 연결점을 도출한 후, 이제 저자는 3절부터 8절까지에서 그 짐승이 무엇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묘사하는 저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짐승을 로마 제국 및/또는 황제와 연결한다면, 이제 우리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황제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짐승은 보편적인 숭배와 충성을 주장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 겉보기의 무적 때문에 이제 온 세상은 짐승을 따르고 용과 짐승을 모두 숭배합니다.

적어도 한 수준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더 넓은 수준에서는 로마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로마에 대한 견해, 로마에 대한 충성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황제 숭배의 형태를 취하는 형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묘사된 것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고 이제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국가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예배와 충성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질문에 주목하십시오. 4절의 질문은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자가 누구며 누가 그를 대항하여 싸우리요?"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질문이나 언어는 반드시 어느 한 사람이 문자 그대로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로마에 대한 태도와 로마가 묘사되는 방식, 사람들이 로마를 보는 방식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 언어는 구약성서에서 다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모세의 노래는 나중에 계시록의 본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후 홍해를 건너고, 지금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오니이까 당신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룩함이 위대하고, 영광이 두려우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4장과 7절은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때로는 시편 89장과 10절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4장과 7절, 그리고 이사야 44장에서 중요한 점은 “너희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는 말씀이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의 맥락에서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예배나 충성을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7절에 보면, 7절에 나와 같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고대 백성을 세운 이래로 일어난 일을 그가 내 앞에 선포하고 설명하게 하여라.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 또는 신과 같은 이 주제는 이제 다시 왜곡된 패러디로 짐승과 누가 짐승과 같으며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는지 말하는 사람들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불경한 삼위일체 개념에 참된 삼위일체에 대한 왜곡된 패러디를 추가하고, 이제 로마 자체가 주장하는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성 모독과 우상 숭배를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위를 주장하고, 자신의 능력을 절대화하고, 절대 권력과 신성을 주장하며, 불경건하고 우상 숭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구약의 여느 제국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짐승이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다니엘 7장과 6~8절에서 짐승이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황제 숭배에 대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이는 로마 전체에 대한 관점일 수도 있지만,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황제 숭배를 반영할 수도 있고 심지어 도미티아누스라는 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통치하던 제국이라면, 도미티아누스 자신이 주장한 신, 특히 일곱 도시의 지역 수준에서 황제 숭배와 관련하여 도미티아누스에게 종종 주어졌던 충성과 환호, 심지어 숭배까지도요. 소아시아와 다른 도시에서도.

셋째, 짐승이 42개월 동안 활동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40은 시험의 시기이자 보존의 시기이기도 함을 시사한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42개월에 대한 언급은 짐승의 활동을 11장에서 일어난 일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12장의 사탄의 활동과도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이것은 13장의 사건이 11장에서 연대순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12장.

그러나 우리가 3년 반, 즉 시간과 반 시간, 42개월과 1260일을 같은 기간을 언급하는 다른 방식으로 취한다면, 42개월은 이것을 세상에서 쫓아내는 것과 분명히 연관시킵니다. 11장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바깥뜰은 환난과 시험의 시대에 있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또한 11장에는 때와 반 때, 두 증인의 증거, 12장에는 사탄의 활동과 여자와 그 자녀들의 핍박을 보존하는 때와 반 때, 이 모든 사건들은 이제 42개월에 대한 언급과 함께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2개월의 짐승 활동은 이전 장의 다른 모든 시간 참조와 동일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짐승이 성도들과 전쟁을 벌인다는 사실이며, 이는 또한 우리를 이전 장으로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11장 17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두 증인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12장 17절에 용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용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과 전쟁을 벌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이 백성과 성도들로 더불어 전쟁을 하는 것을 통해서라.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투쟁과 박해의 진정한 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의 본질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박해는 악마의 영감을 받은 짐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째, 짐승은 온 땅의 왕권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지만, 전 세계에 권위를 갖고 있는 로마의 거의 과장된 언어인 보편적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의 일곱째 인에서 이미 본 요한계시록의 지배적인 주제 중 하나가 세상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아의 왕국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땅의 왕국이 어떻게 이제 사탄과 짐승으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 옮겨지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온 땅에 대한 로마의 통치를 강조함으로써 땅의 왕국, 세상의 왕국(요한계시록 11장)이 이제 어떻게 손에 들어왔는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주제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또는 4장과 5장에서 인식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완전한 주권은 결국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이유로 지금 로마에서는 그 짐승이 온 땅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에 대해 두 가지 관찰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섹션에 대한 두 가지 관찰이 있습니다. 우선, 로마의 권위가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거의 과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묵시적인 문학 유형에서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가 이 땅에서 휘두르는 완전한 지배와 권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저자의 방식이다. 그러나 John이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로마의 통치는 단순히 더 넓은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로마의 통치는 아직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아에게 넘겨질 온 땅에 대한 통치권의 전조이자 일부이며 기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의 주제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것이 1세기 로마 제국에 적용되거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상상합니다.

따라서 로마는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오셔서 패배시키실 이 원칙, 즉 이 세계적인 통치와 제국을 1세기에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의 초림에 이미 패하였으나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를 멸하리라 그 때에 이 땅의 나라가 사단과 그의 권세에서 옮겨져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질 때라 . 따라서 과장법은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로마를 1세기의 표현으로만 본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연속적인 제국이나 특정 기간을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로마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패배하러 오실 전 세계를 통치할 이 제국의 1세기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장에서 반복되는 후렴구가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그 짐승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짐승에게 이것을 주었느니라. 이것은 아마도 이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 번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탄과 짐승의 활동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만 행동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권세가 악의 권세를 이길 때까지 서로 상충되는 두 권세를 갖는 이원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모든 것을 강탈하거나 지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는 라이벌이 없다는 것.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그에게는 라이벌이 없습니다.

이 짐승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진정한 이원론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여전히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며,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안에서 행하도록 허락하신 일만 하도록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첫째 짐승의 목적은 성도들이 겪는 환난의 진짜 원인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 진짜 원인은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출처는 사탄의 대리인인 악마의 영감을 받은 짐승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 같은 제국들과 우상

숭배하고 경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며 스스로 세상에서 절대 권력으로 자처하는 다른 통치자들과 제국 뒤에 있는 동일한 악마의 영감을 받은 짐승 같은 세력에서 나옵니다.

그 동일한 악마의 영감을 받은 세력이 이제 로마와 로마 황제의 주장, 그리고 1세기에 하느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멸망시키려는 로마의 시도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 장에서는 무엇이 위태롭고 타협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로마 통치와 타협하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지만, 로마 통치와 타협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사탄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2장과 13장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짐승은 다른 아닌 사탄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제국 내에서 타협하고 안주하려는 유혹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 경종입니다.

로마에 대한 그들의 충성과 심지어 황제 숭배에 대한 명시적인 참여 뒤에는 그들이 실제로 10장부터 용, 즉 사탄 자신에게 주고 있는 숭배와 충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 뒤에는 12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사탄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한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통해 그들은 인내하면서 그들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실한 증언을 유지하고 타협을 거부하고 이교 로마 제국의 주장에 따르기를 거부하면서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아주 간략하게 10절, 9절, 10절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사이에 일종의 삽입물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러티브를 깨뜨려도 이 구절들을 꺼내면 내러티브는 첫째 짐승에서 둘째 짐승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깨뜨림으로써 실제로 이 본문은 분별력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즉,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건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부추기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삽입은 요한이 이에 비추어 그의 교회들에게 순종으로 응답하고 인내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반복되는 귀를 가진 사람은 실제로 2장과 3장에서 반복됩니다.

또 다른 암시는 이것이 2장과 3장에서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동일한 언어가 반복됩니다.

이 언어는 누구든지 활동에 들어가거나 포로로, 포로로 들어가려고 하면 갈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칼로 죽임을 당한다면 그들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며 이는 구약성서의 표현을 반영합니다. 다시 예레미야 15장 2절, 예레미야 43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요점은 하나님, 즉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로마 제국의 손에 박해를 당할 것이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인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1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13장에서는 지금 상황에 대한 묵시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을 구체화합니다.

그것은 인내와 박해의 하나입니다. 이제 그들은 상황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13장은 독자들의 상황을 상징적이거나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예수의 비유와 매우 유사하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들을 귀를 가지라고 요구하신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13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방해받지 않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황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로마의 본질과 그들의 투쟁의 본질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 번째 짐승으로 인도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2번 짐승은 1절부터 8절까지의 1번 짐승을 둘러싼 사건들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1위 짐승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13장은 용이 여자와 그 후손을 쫓는 12장의 끝과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짐승 번호 1을 통해. 그런데 1번 비스트는 2번 비스트를 통해 어떻게 활동을 펼치는 걸까요? 모든 연관성에 주목하십시오. 이제 첫 번째 짐승은 두 번째 짐승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말할 권한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첫째 짐승의 권세를 자기를 대신하여 행사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짐승은 둘째 짐승을 통해 어떻게 온 땅에 대한 권세를 행사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누구입니까? 그는 이 짐승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박해 권위를 행사합니까? 이 짐승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

: 첫째, 그가 용처럼 말하며 1장에서 그를 다시 용과 분명히 연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또한 짐승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요점은 그가 그를 대신하여 첫째 짐승의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짐승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고 아마도 온 땅을 다스리며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는 첫 번째 짐승으로 대표되는 황제 자신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짐승은 누구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둘째 짐승은 로마 지방,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수단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둘째 짐승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박해를 경험하게 될 구체적인 수단입니다. 로마나 황제의 짐승 1호.

즉, 2장과 3장에서 소개하는 소아시아와 일곱 도시에 사는 독자들은 사탄과 첫째 짐승의 핍박하는 권세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것은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나는 두 번째 짐승이 너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아마도 두 번째 짐승은 황제 숭배와 같은 일을 집행하는 책임을 맡은 소아시아 지방의 지도자들과 공식 관리들을 나타낼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황제는 로마와 황제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고 집행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한 결과를 집행했습니다. 사실, 그리스어를 알고 있거나 그리스어를 읽는 여러분 중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11절의 이 부분에 있으며, 이어서 우리는 저자가 여러분이 그리스어에서 찾을 수 없는 시제 형태의 동사를 선택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13장 첫 부분.

그는 매우 서술적이거나 전면적인 의미를 지닌 현재형 시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12장과 13장이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권세 곧 첫째 짐승의 권세가 소아시아에 있는 지도자들과 관원들과 소아시아 지방과 충성과 경배를 맡은 성읍들에게 이르리라 로마와 황제.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특정 사람이나 그룹에 연결하지 않고도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한 결과를 분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14장 20장 12절에서 이 둘째 짐승, 즉 부정한 삼위일체의 세 번째 구성원은 거짓 선지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설명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용처럼 말하고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데, 이는 우리가 말했듯이 소아시아

도시들에서 황제 숭배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대부분이 외국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대부분은 황제를 기리는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황실 사원에서는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성전 예배가 준수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과 성전 관리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이 짐승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을 속여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이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는 13장의 첫 부분뿐만 아니라 12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장 9절에서는 사탄이 옛 뱀 곧 온 천하를 꾀는 자 곧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마귀로 묘사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세계. 이제 그의 기만적인 활동, 사탄의 기만적인 활동은 첫째 짐승에 의해 수행되고 있지만, 지금은 특히 독자들 사이에서 둘째 짐승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여 첫째 짐승인 로마와 아마도 그 황제도 따르고 경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수행하는 두 가지 흥미로운 신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창조된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유사할 특정 사건을 구체적이고 문자 그대로 식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약간 꺼립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1세기 로마의 마술사들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미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능력을 일부 사람들이 제안한 복화술의 예입니까? 그 뒤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이 두 이미지는 다시 한 번 로마 제국의 기만적인 힘을 강조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장 텍스트. 예를 들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엘리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제국의 실제 표적을 가리키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마술사들은 모세가 애굽에 쏟아부은 표적과 기적의 재앙을 대부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대한 구약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 힘을 통해 속이는 로마 제국의 능력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이미지는 어떤가요? 아마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이미지는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이미지를 설정한 다니엘 3장의 또 다른 구약 본문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 형상은 느부갓네살과 왕국 전체에 대한 그의 통치와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미지는 로마와 제국의 통치를 대표하고 반영하는 소아시아 도시 대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미지와 조각상, 사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그러나 이미지에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다시 한 번 속이는 로마의 힘, 시민을 속이는 로마의 힘, 그 주민들이 로마에 충성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로마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 짐승의 기만적인 활동에 관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우리가 이미 두 번째 짐승이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기만적인 활동을 회상하며 창세기 3장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온 세상을 미혹하거나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은 분명히 사탄이 그의 후손인 두 번째 짐승에게 계속해서 기만적인 활동을 펼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기만적인 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 그가 거짓 선지자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으로 돌아가 보면, 다수의 교회에 거짓 선생들, 즉 요한이 갈등하고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적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속여 로마 제국,

불경건하고 억압적이며 우상 숭배적인 로마와 타협하도록 하는 것이 임무인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나 거짓 교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2장 14절에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책망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꾀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음행을 범했습니다. 그런 다음 15, 그는 또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이교 통치와 타협하도록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2장 20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책망할 일이 있노라. 당신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시나이다. 이제 거짓 선지자와의 흥미로운 연결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여자는 가르침으로써 내 종들을 그릇 인도하고 속여 성적 부도덕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번 짐승을 식별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로마제국과 황제 숭배 등의 기만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짐승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 세상이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서는 짐승과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곧 이세벨이라 하는 이 여자와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받아 교회를 미혹하고 선지자 이세벨은 지금 이교 로마와 타협하여 로마에 충성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2장과 3장의 독자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들이 저항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굴복하고 따를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교회 안의 이 기만적인 가르침과 예언, 거짓 가르침은 물론이고 더 넓은 세상에서의 기만적인 활동의 배후에 있는 참된 근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이 마지막으로 행하는 일은 16절과 17절입니다. 짐승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온 세상은 짐승 곧 로마에게 충성하고 경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상업에 종사하기 위해, 분명히 이 구절들에 따르면 그들은 표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더 넓은 맥락에서 그들이 이마에 받는 표는 분명히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144,000인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이마에 받는 표 또는 인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마크는 아마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크인 정체성과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세기에 이 표는 글자 그대로 신분과 소속감을 나타내는 노예의 낙인이나 표를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미안해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그 표시는 보존이나 보호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정체성과 소속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문자적인 표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자적인 브랜드라기 보다는, 적어도 계시 담화에서는 이것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마도 상징일 것입니다. 정체성과 소속감. 로마와 연합하는 사람들, 로마와 황제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이제 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고, 매매가 허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6장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상업 및 경제 생활의 모습을 본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뒤바뀌고 혼란스럽고 불균형하고 억압적이며 불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이 로마에 속한다는 것은 아마도 황제 숭배에 참여함으로써 로마에 대한 충성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들이 받는 표가 되어 그들이 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1세기에 이것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몇몇 교회와 관련하여 그들의 일의 일부로 무역 길드에 참여해야 했을 것이다.

종종 이러한 무역 길드에는 수호신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속하기도 했습니다. 귀하의 사업에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귀하는 이러한 무역 길드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들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신뿐만 아니라 황제에 대한 숭배와 충성, 감사를 나타내는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즉, 무역 길드와 상업은 황제 숭배와 밀접하게 얽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1세기 로마에서는 상업과 정치, 종교 사이의 연결을 풀어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 로마제국과 소아시아의 교회와 도시에서 상업의 일부, 무역 길드에 속한 일부, 상업과 무역에 참여하는 일부, 그리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이교 신들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황제 숭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그림은 경제적 결과를 따르거나 고통을 겪도록 하는 압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가난하고 라오디게아는 부자로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서머나는 타협을 거부했고, 황제 숭배라는 종교 체계를 통해 이교 로마 제국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타협을 거부했고 현재 그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난하고 평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묘사되는 반면,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로, 아마도 그들이 타협하려는 의지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그 결과로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요점은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참된 투쟁, 즉 사탄의 영감을 받은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타협하게 하고, 예배하고 충성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려는 시도를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심지어 상업의 맥락과 사업 수행, 그리고 무역 길드와 관련하여 타협하고 있으며 이제는 로마와 로마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회에 관여하고 기회와 때를 따르도록 강요당함으로써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짐승, 로마제국으로.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1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시도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13장은 상황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하여 그들이 이교 로마 제국과 타협하고 인내하고 저항하는 데 필요한 힘을 갖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짐승의 표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날 수 없습니다.

특히 18절의 요점은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계산해 보십시오. 짐승번호는 666, 666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것을 더 넓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13장은 18절로 끝나며, 이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또 다른 요구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로 짐승이 누구인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마지막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계산하기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점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이 언어는 귀 있는 사람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참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분명히 그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이 짐승의 수에 관해 지혜를 가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흥미 롭군요. 17절에 보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니라. 그리고 이제 인간, 그것은 18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수 또는 그들이 계산할 인간의 수라고 불리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이 따르도록 강요받고 있는 우상 숭배 제도에 저항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그들이 받게 될 이 표가 바로 짐승의 이름임을 말함으로써 그 이름에 대한 언급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느님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될 이름과 대조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2장과 17절, 3장과 12절에서 이 본문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일부는 그들이 이름, 아버지의 이름, 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위에 쓰여 있습니다. 14장 1절 이에 내가 보니 내 앞에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는데 그 십사만 사천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 환상의 마지막

부분인 22장 4절, 책 끝 부분인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상업에 종사하도록 허락된 자들 위에 기록된 짐승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다른 부분과 직접적인 대조를 의미합니다. 사람들. 따라서 아마도 이것은 다시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누구의 이름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정체성과 소속감 또는 충성심과 연합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식별되는 이 666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려움의 일부, 이 상황을 분별하도록 그들이 부름을 받은 이유의 일부, 그것이 짐승이 기만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짐승의 활동의 기만적인 성격 때문에, 그것은 독자들의 통찰력과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기만적인 성격 때문에, 위태로운 일 때문에 그것에 저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상황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지혜를 가지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것에 빨려 들어가 순응한다. 그런데 이 숫자 666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666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따르면 이것은 게마트리아(Gematria)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1세기의 일반적인 개념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파벳 글자를 숫자와 연관시키는 고대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은 사람의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을 취하고, 이해되고 가정되었을 각 문자의 숫자 값을 취하고, 그 숫자를 모두 더하여 숫자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는 일종의 코드이거나 이름을 나타내는 지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많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어로 Jesus라는 이름, 그리스어로 Iesous라는 이름을 그리스어로 Iesous라는 예수의 각 글자에 대해 가정된 숫자 값을 취하면 합하면 888 또는 888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666은 예수의 이름인 888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혜에 대한 저자의 요구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무시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666은 온갖 추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666이라는 숫자는 역사적 인물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666이라는 숫자가 종종 대통령 자신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666이라는 숫자가 사담 후세인, 아돌프 히틀러 또는 종교 개혁 당시 교황과 같은 다른 사악한 통치자와 연관되어 왔습니다. 666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특정 교황과 연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666을 현대 기술과 연관시키려는 다른 시도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봤고 다른 예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666은 구매하는 상품에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부터 신용카드, 사람들이 생각하는 컴퓨터 칩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팔뚝이나 두개골에 박혀서 우리와 같은 것들을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동기를 부여하는 숫자 666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반납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번호판에 666이 들어있어서 번호판을 돌려줬어요. 아니면 666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나는 청구서가 6.66달러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 666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과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와 거기에서 나온 해석학적 원리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통해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우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John의 독자들에게 이것이 미스터리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지혜를 구하는 요청이었고, 숫자를 계산하라는 이 요청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존재이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요한의 독자들은 이것을 이해했을 것이고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이와 관련된 계시록의 해석이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요한이 이해할 수 있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거나 요한이 의도할 수 있었고 그의 독자들이 살아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본 가장 중요한 해석학적 원리 중 하나입니다. 1세기 그리스-로마 제국, 기술 이전 시대, 소비자 시대 이전, 현대 이전 전쟁 시대, 핵 이전 시대,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지난 세기 동안, 특히 오늘날 제안된 666에 대한 많은 가능한 설명을 배제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의 현대 기술 특징이나 현대 전쟁 방법 및 바코드 및 컴퓨터와 관련된 설명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원칙이 그런 유형의 설명을 즉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수로 표현한 것이 흥미롭다. 여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숫자를 의미하니까, 아니면 심지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사의 숫자와 반대되는 인간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또는 그가 그것이 숫자라고 말할 때, 또는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숫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7절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 표를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확실히 그 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절은 그 숫자가 짐승 자체와 어떤 관련이 있거나 관계가 있음을 거의 암시하거나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일까요?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짐승의 숫자가 네로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네로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네로 통치의 성격과 그와 자주 연관되는 악을 고려할 때, 심지어 1세기에 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떠나서라도 네로는 거의 사악한 황제의 모델이나 유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와서 또는 다른 황제. 따라서 여기서 Nero가 Nero에 대한 언급으로 666을 사용함으로써 저자가 Nero를 문자 그대로 언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Nero의 악인 거의 Nero의 정신이 이제 다시 한 번 로마 황제에게 구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네로와 그의 황제를 구현한 동일한 신이 없는 악령, 즉 악의 모델인 네로는 이제 현 황제 안에 거주하고 표면화하고 있는데, 요한 계시록의 날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가 받아들여진다면 그 황제는 도미티아누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Nero의 이름을 666과 정확히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그리스어로는 실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Nero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된 방식과 연관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Nero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도 일반적인 철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소 드물게 철자를 사용하면 최대 666까지만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그리스어 Nero를 666과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Nero뿐만 아니라 Nero의 철자를 반영하고 히브리어로 Nero Caesar와 그에 대한 다소 드문 철자를 반영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666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를 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독자들은 그랬을 것이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히브리어로 Nero Caesar라는 이름의 다소 희귀한 철자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설명을 찾았지만, 특히 17절에 나오는 표시와 숫자, 황제 이름 사이의 연관성 때문에 나는 그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네로의 말을 암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그는 그가 쓴 로마제국의 통치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악의 모델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숫자 666을 보는 것이다. 또 다른 일반적인 견해는 이를 인간의 수, 즉 인간의 수 또는 완전수 7에 하나 부족한 숫자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666은 완전수 777보다 하나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재 인간 통치자 도미티아누스 안에 구체화된 죄 많고, 타락하고, 신이 없고, 우상 숭배하는 인류의 숫자일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이제 완전한 숫자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사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기만적인 인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제국과 그 황제의 신이 없고 우상숭배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또 다른 방식인 로마와 그 황제를 신이 없고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독자들이 로마와 그 황제의 진정한 본질을 분별하도록 하려는 저자의 방식입니다. 아마도 그를 Nero와 연결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를 그의 이름으로 묘사하는 것은 완벽한 숫자 7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그는 불완전함과 악과 우상 숭배를 구현하고 있으며, 이것을 구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무신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관행에 더 잘 저항하고 속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은 진정한 묵시적인 방식으로 로마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로마는 사탄의 영감을 받아 악과 우상 숭배와 억압과 불경건을 구현하는 이 끔찍한 짐승임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의 끝으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이전 세대와 제국에서 현재는 모두 로마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투쟁의 진정한 근원을 말해줍니다. 바울의 언어로 말하면, 그들의 씨름은 단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씨름은 하늘 권세와 하늘 권세와 사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관점과 지식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들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하고 볼 수 있습니다.

타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저항하고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심지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견디며 남아 있고 결과가 어떠하든 충실한 증거를 유지하십시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의 19번째 세션입니다.